

##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7월 7일 주일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리고 파트력이 있습니다.
  - 시간 및 장소 : 오전 10시 30분, Silver Lake Shelter
4.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타주와 다른 도시로 이주해 가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 장승호/허민준 : Boston, Massachusetts
  - 여일환/박울하 : Minneapolis, Minnesota
  - 임지혁 : Nutley, New Jersey
  - 김유빈 : Grand Rapid, Michigan
5.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3일 : 전영진

###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최혜리 / 설교번역: 신지원
- 6월 안내 및 봉사: 주나 목장

### \*향후 교회 일정

- 야외예배 : 7월 7일(주일) 오전 10시 30분, Silver Lake Shelter
- VBS : 8월 17일(토)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25주)

삼상 17:57-18:5,10-16/ 시 9:9-20 / 막 4:35-41/ 고후 6:1-13

교회세운날 2017.6.11

24-25

6월 23일 (성령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on Zoom  
8월말까지 쉽니다.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https://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편 98:4-5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강지연 자매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히브리서 11장 8-10절 — 인도자

설교 — 길 위의 인간, 그리고 나침반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헌 목사

\* 표에는 일어납니다.

# 목회편지 /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두 번의 기념비적(?) 여행이 있었기에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첫 여행은 교회 청년부의 여름 무전 전도여행이었죠. 말그대로 무일푼으로 돈 없이 떠나는 전도여행이었습니다. 대 여섯 명이 한 팀이 되어 전북 무주 지역을 걸으며 전도하는 컨셉이었죠. 2박 3일동안 시골 지역을 정처 없이 걸으며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농번기로 바쁜 어르신들에게 짐만 안겨 드리고 밥만 축내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떠나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인도하시구나를 깨닫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 그 해 겨울 저는 난생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라오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낯선 나라로 가는 선교여행이었습니다. 당시 라오스는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반정부 무장 게릴라 세력들이 지방 곳곳에서 봉기하는 불안한 상황이었죠. 십 여 명의 우리 선교팀은 수도 비엔티엔에서 북쪽에 위치한 루앙파방이라는 도시로 트럭을 개조한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숲 속 도로에서 게릴라 반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맘으로 숨 죽이며 그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죠. 목숨이 위태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사와 게릴라 대표 간에 몇 분간 대화가 끝나고 우리는 무사히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지요. 이것은 무전 여행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경험치들은 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인간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 중에, Homo Viator'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걷는 인간'이란 뜻인데 인생을 여정으로 이해하며 떠나고 방향하기를 반복하는 인간의 숙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인생길을 순례하는 나그네들입니다.스티브 도나휴는 <Shifting Sands>라는 책에서 사막을 횡단했던 그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장에서 "지도는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조언합니다. 모래 폭풍이나 다양한 변수에 의해 쉽게 변하는 지도는 사막 여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침반은 목적지는 알려주지 못할지라도 명확한 지향점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날 같이 변화가 빠른 상황 속에서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구체적인 목적지를 갖는 것보다 목적의식을 갖고 방향하기를 그는 추천합니다. 그는 나침반을 따르는 삶을 "목적의식을 갖고 방향하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나침반은 끊임 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오히려 큰 믿음을 주는 아이러니입니다. 많은 이들의 우리 곁을 떠나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체스터를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길을 떠나는 이들이 사막과 같은 인생 여정을 무사히 통과하며 잘 살기를 기도해 봅니다. 떠나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에게는 삶의 나침반이 있습니까? 그대의 인생을 향한 목적 의식을 갖고 길을 떠나시나요? 떠남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안정된 기반을 뒤로하고 열악하고 취약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길잡이이자 나침반임을 믿는 자들의 삶은 흔들리더라도 방향하더라도 안심입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